

제434주년 권율장군 이치대첩 기념행사 성황리 거행

권혁홍 회장 “이치대첩은 후손들에게 자긍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최고의 역사적 유산”

제434주년 권율장군 이치대첩 기념제가 8월 26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금산군 진산면 충장사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진산역사문화연구회(회장 강연한)가 주최하고 금산군이 후원한 이치대첩제는 금산의 민관군과 안동권씨 대종회가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축제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제는 정호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 의례, 이치대첩 승전기록 낭독, 기념사와 축사, 조총 발사, 헌화·분향, 제2회 이치대첩 청소년 예능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상장 수여, 수상자들의 밴드·보컬·댄스·독백·합창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번 예능대회는 지난 대회와는 달리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날 기념제에는 문정우 금산군수, 전현석 금산군의회 의장, 강동하 금산경찰서장, 권영신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민호 금산농협은행 지부장, 이영주 금산소방서장, 김복만, 박병훈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화영 금산군의회 부의장, 김기윤, 김병수, 송영천, 변문환, 김영애 금산군의회 의원, 강정현 금산문화원장, 강연한 진산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김태진 완주군청 팀장, 양현완 금산향교 전교, 이상문 금산이장협의회 회장, 권문석 주민자치회 회장, 전해철 진산면장, 권점수 700 의총 소장, 전승수·김민철 웅치이치대표, 정용석 기독교복음 대표, 황승규 황박장군 현창회 대표 등 지역의 거의 모든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권태정 수석부회장, 권오돈 추밀공파회장, 권영복 서울지역총친회장, 권용기 대전지역총친회장, 권기성 전주완주총친회장, 권오형 문충공 종중 회장,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인순 탄옹공 종중 이사장, 권선출 만회공 종중 삼임이사,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익 사무국장, 권경일 추밀공파 사무처장, 권석순 북악공파 사무국장,



이준학·이수란 성악가와 초·중학생 및 지역주민 5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권기준 문경공 종손, 권용호 매헌공 종중 회장, 권순호 매헌공 고문, 권송웅 전 진장향교 전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대거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치대첩제는 32사단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애국가 제창 등 국민의례를 진행했고, 김성일 사무국장의 내빈 소개로 막을 올렸다. 이어 이수란, 이준학 성악가와 초등·중학생 및 지역 주민5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합창단은 “조선을 구하였네. 조선을 구한 이치. 구했네. 조선을 이치가. 아 아.”를 열창하여 참석자들에

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

주최측은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제2회 이치대첩 청소년 예능대회를 지난 6월 6일에 실시하여 대상을 차지한 강다경 학생, 특별상을 받은 진산초 6학년 이서혜 학생 등 입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어 미래 세대에게 호국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강연한 회장은 이치대첩의 승전의 기록을 남독했다. 버티고계에서 권율장군은 황진장군 등 1,500여 명의 결사대와 합심하여 1만여 명의 왜군을 상대

로 호남 진출을 저지해 낸 임진왜란 육지전 중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다. 일본군은 진산에서 이치를 넘어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그러나 권율장군은 “오늘 이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 죽음만 있을 뿐 삶은 없다”고 외치며 진두지휘한 결과 왜군을 물리쳤다. 이 승리는 임진왜란 초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조정의 재정적·군사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전북·호남 지역을 지켜 낸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강연한 회장은 호남을 지키고 조선을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진산역사문화연구회가 출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많은 분들, 금산군 의회 의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하셨다. 안동권씨 문중에서 많이 참석하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치대첩은 전쟁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곡창지대인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 이치에서 격전을 벌였다. 권율장군이 육지에서 최초로 승전한 곳이다.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치대첩은 임진왜란의 모든 전쟁의 전세를 기울이게 하여 결국 왜군을 물리친 계기가 되었다. 2000년 9월부터 충청남도 유적지로 지정되었으나 국가사적지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치대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한다. 국가사적지로 승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석 금산군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이곳에서 권율장군 지휘하에 약 5일 동안 전투를 벌인 것 같다. 이곳은 충남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사적지로 승격되어야 한다. 공경되도 했다. 진산과 완주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국가적인 역사만들기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복만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당시 금산군수는 권중 군수였다. 권율장군과 사촌간이다. 영동에서 금산으로 들어오는 천내강을 지키다 부자가 전사했다. 금산에서 총 6번을 싸웠는데 5번은 패배하고 따 1번 이치에서만 권율장군이 승리했다. 웅치에서는 일본군이 승리하여 전주로 가다가 이치에서 패배하자 퇴각했다. 해마다 행사를 하는 의미는 우리 역사를 후손들이 배우고 익혀 비참한 꼴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다.

권태정 수석부회장은 안동권씨 대종회 권혁홍 회장님께서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해외 출장 중이라 부득이 수석부회장이 축사를 대독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축사를 대독했다. 오늘, 온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호국영웅 권율 장군과 무명용사들의 웅혼한 기상이 서린 이곳에서 제434회 권율장군 이치대첩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100만 안동권씨 종친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진산역사문화연구회 강연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문정우 금산군수님 등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오 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안동권씨 종친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율 장군께서 이끌어내신 이치대첩은 육상에서 거둔 임진왜란 최초의 대승이자,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켜 내어 나라를 구하는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위대한 승전이었습니다. 장군의 탁월한 지략과 필사즉생의 기개, 그리고 군관민이 하나 되었던 단결력은 43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속에 자랑스러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보여주신 열사봉공의 호국 정신과 당당한 기상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자긍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최고의 역사적 유산입니다. 다시 한번 제434회 이치대첩제의 성대함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완주군 운주면 산복리에 위치한 '산으로 전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권혁홍 회장은 비록 해외 출장 중이라 비록 참석은 못하지만 참석자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리라고 160만원을 찬조해 주었다.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 20만원, 권기성 전주완주총친회장 20만원, 권오신 전주완주총친회 자문위원회 10만원을 찬조했다. 점심 식사 후 안동과 충주, 대전, 서울 등으로 각각 귀가했다.

축하 화환은 권혁홍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추밀공파대종회 회원 일동, 추밀공파 연천공종회, 총장공 권율도원수 종회, 안동권씨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동원, 안동권씨 대전종친회 회장 권용기, 시운농약사 권오영, 추밀공파 부회장 권송웅, 안동권씨 금산군 종친회, 안동권씨 탄옹공 종중 등에서 화환을 보내 이치대첩제를 축하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安東權氏 牧使公 諱 博 世譜 編纂



우리 종중에서는 1960년 풍담공파보 이후 참의공파보 추밀공파보 대동보 등이 발간되었으나 금번 목사공 휘 박 세보편수 사업을 실시기로 결의되어 2026년 2월 종보신문에 공고하여 그동안 각 문종과 종원의 성원에 힘입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에 수단이 마감되니 누보되는 일 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 수단금(명하전)은 받지 아니한다.
 2. 보책은 종중에서 부담하여 무료로 배부한다. (2027년 4월 초 배부예정)
 3. 수단기간 2026년 10월 31일까지 마감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종중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종중)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132(제기동)
- ♣회 장 : 권영익 (010-5257-3400)
- ♣총 무 : 권희원 (010-6252-5454)
- ♣편찬회 : 권석원 (010-4016-3856)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185-57 송덕재

안동권씨 목사공 휘 박파종중 회장 권영익